

다윗 왕의 결론과 내 인생의 결론

-복음으로 여는 역대상-

역대상 28:9-10, 고린도전서 10:31

정윤돈 목사님

* **대상28:9-10**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일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세계선교를 위하여, 땅끝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염려하였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와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 실천하고 도전해야 할 레마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금요일에 장로님이 포럼을 하셨다. 제가 언어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동안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격증을 따려고 고생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성취를 보아 감사했다.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칠 줄 믿는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이유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다윗은 실수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며 인생의 살아가는 절대미션이 하나님이었다. 다윗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실상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그러나 미래에 받을 축복이 결정되어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실상이며,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충만이 내 안에 임할 때 가질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장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이 땅의 흑암도 꺾이는 것이다. 이게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믿음이다. 모든 것을 뺏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 이 땅의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반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면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가 나를 덮쳐온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보인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멋지게 믿어야 한다. 그러면 멋진 인생이 된다. 다윗의 인생은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진정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후대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탄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데몬 헌터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주 치유다락방을 가는데, 그 분이 항상 말씀

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지난 주에 귀신 보였는데 안 보이게 해주면 안돼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 본인도 놀랐는지 덤덤하게 말했다.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다. 우리들과 후대들이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증액 속에서도 2025년 8월 수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였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살 거야, 우리 교회가 살 거야, 세계복음화 될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된다. 성경을 보면 노예, 포로, 속국생활 속에서도 절대 속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요새가 너무 억울해하고 원수 갚으려는 느낌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 다니엘이 부모님도 잃고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미래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절대 당장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늘 내 앞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남은 자 램네티 단 한 사람이라도 세계복음화, 땅끝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의 결론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메시지할 것이다. 다윗의 결론이 아닌 것이 있다. 첫째,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인생결론이 아니었다. 둘째, 원수 갚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용서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때문에 내 모든 감정을 쏟는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키워 영적, 기능, 문화의 서민이 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왕권과 돈, 부귀영화가 다윗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결론이었다. 인기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여 인생을 망쳤다. 그런 예들이 많다. 다윗은 이런 것들에 신경도 안 썼다. 다윗의 결론은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목자로 부름 받았는데 충성했다. 물맷돌 돌리는 일을 하며 양들을 지켰다. 그 사람이 살리는 것이다. 우리 램네티들이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램네티의 언약이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결론이었다.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면 화나지만 교회가 욕먹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가.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났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다윗 인생의 시작이요 응답이요 해답이요 결론이었다. 그러니 인생에 갈등할 필요가 없었다. 인생의 절대목표가 없는 사람이 갈등을 겪는다. 알고 보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 가치 있는 목표가 없는 것이다. 또 후대에게 RUTC성전을 건축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결론이었다. 우리 후대들이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를 살리고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릴 인물이 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인생의 절대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구약성경 중 사무엘상, 하서와 열왕기상, 하서 그리고 역대상, 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약 39명의 왕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해 주셨는데도 왕들이 계속 잘못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장 잘 걸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서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역대상에서는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상, 하서와 열왕기상, 하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들은 같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4복음서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관점으로 봐서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서의 특징과 기록목적에 대하여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내용이 많이 나오나 역대기서에서는 가능한 죄와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율법의 책으로 역대기서를 복음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열왕기서는 포로기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서는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여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영화와 축복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열왕기상하는 똑같은 역사인데 사관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선진들이 잘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준 것이다. 나중에 포로기를 지나 성전을 회복할 때 역대기서를 정리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누리라는 말

숨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관이 다른 것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역대상 전체의 내용을 알아보겠다. 역대상은 총 29장으로 되어있다.

(1)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다. 특이한 점은 그 족보의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와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족보이고 언약의 족보이다. 역대기에서 족보를 가장 앞에 그것도 길게 기록한 이유는 약 100년 동안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태초에 천하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 12지파를 번성하게 하였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족보를 통해 보게 하는 것이다.

(2) 족보기록 후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영과 세상을 따라간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들린 점쟁이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강단을 통해 응답을 얻기를 바란다.

(3) 1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 왕의 등극과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왕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궐을 옮기는 등 그의 주요 업적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준다. 특히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윗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RUTC성전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남은 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램넛들이 교회에서 운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복지도 하고 있다. 강남노회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운동하신다. 선전국가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야 하는데 통일교가 그것을 알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포교활동을 했다. 우리도 눈을 열고 준비를 해야 한다. 성도들과 특히 후대들은 이러한 한이 있어야 한다.

(4)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에 보면 성전건축 준비와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면서 역대상은 끝나고 있다. 이렇게 역대상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다윗 왕조를 통한 구속사적인 흐름, 그리고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역대상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다윗 왕의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다윗은 한 작은 시골출신의 목동이었지만 언약 속에 있었던 다윗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역대상 1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이 뵈을 때 “응답을 받았구나”하는 사람들은 다 잘된다. 묻지 않고 하면 이상한 곳에 가 있다. 여러분이 담담목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제 기름부음을 받는 방법이다.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강단을 붙잡고 이 언약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자긍심과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양의 똥을 치우는 목동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많은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결론은 돈, 물질, 세상이다. 그것은 사탄의 울무, 툇,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2) 다윗의 결론은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을 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싸울 용사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는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정치, 경제, 전도도, 사업도,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을 보면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야소브암’이라는 장군은 혼자서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인 용사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기를 축원드린다.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많은 용사들을 붙여 주셨다. 혼자서는 절대로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능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것 바로 300%의 즉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의 응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하여 300%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3) 역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역사책에서 생명책에서 심판의 책에서 지워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워주셨다.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워주셨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4) 다윗의 결론은 미래성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대대로 전달할 후대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이 성전을 정치, 경제, 문화를 변화시킬 RUTC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뉴 크리에이션 처치(New Creation Church, 조셉 프린스 목사)는 스타 비스타(Star Vista)라는 큰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대적인 찬양과 새로운 복음문화를 만들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 어른들은 그릇을 만들고 후대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인도에도 뉴 라이프 어셈블리 오브 갓 교회(New Life Assembly of God Church)는 약 수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 뉴 라이프교회는 힌두교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인도에서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237나라 5000종족에 복음 문화를 세울 RUTC를 세우게 될 줄 믿는다.

(5)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첫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둘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끌려 다니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그만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여러분이 찾아야 한다. 힘써 행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주하게 살다 허망해지는 때가 온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이다.

첫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 분야에 전문인이 되려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한다. 내가 성실하게 하면 어느 시간에 시간값이 온다.

두 번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결론이 되어야 한다. 소요리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여러분이 예배, 찬양, 봉사, 전도, 공부, 배우는 것이 즐겁다면 이미 성공한 자이다. 이것이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감동, 감격, 열정이 일어나는 현장을 전도현장으로 만들어라. 집중하고 생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현장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정복해야 한다. 그 현장에 산업선교지부, RUTC문화센터, AI센터, 로봇센터를 전 세계에 세워야 한다. 땅끝복음화이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갔다. 전 세계 곳곳에 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RUTC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회의 헌당과 부흥이 제1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목렐러처럼 전국과 전 세계에 성전과 교회와 RUTC센터를 세우는 것이 절대목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왔다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여 모든 흑암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